

# 광주시장 후보들, 첫날 유세 '4인4색'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본격 개시된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4인4색의 메시지와 행보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 본격 개시된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4인4색의 메시지와 행보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는 출근인사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 앞 사거리, 전 후보는 남광주시당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지지를 호소했다. 무난하고 클래식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개시한 셈이다.

반면 나경채 정의당 후보는 오전 6시, 청소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인 남구 불빛공원에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남구청 청소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더 이상 비극적 사고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민호 민중당 후보도 오전 5시

20분 첫 선거운동을 북구 환경미화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뜻깊은 선거'를 대변했다.

각 후보들은 첫 일정을 소화한 뒤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5·18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당 출정식에서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이형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5개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갑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민주당부 수립으로 광주의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경제적 나후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경협과 전문성, 집권 여당의 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 3박자로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

### 민주당 이용섭 "행복하고 당당한 광주 만들겠다"

### 바른전덕영 "4차 산업혁명엔 새로운 리더십"

### 정의나경채 "21% 지지율로 견제정당 디딤돌"

### 민중 윤민호 "진짜 야당, 정통진보정당에 힘을"

우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을 마친 후 이 후보와 민주당 소속 광주시지역 전체 후보자들은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관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바른미래당 전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관료 경제에만 익숙한 정치인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첫 현장 방문으로 첨단지구 마이크로로봇센터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광주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바꾸지 않으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며 "수십 년 간의 일당 독점, 부정부패, 이제 끝내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썩어버린 고인 물을 새로운 물로 바꿔주어야 광주의 활로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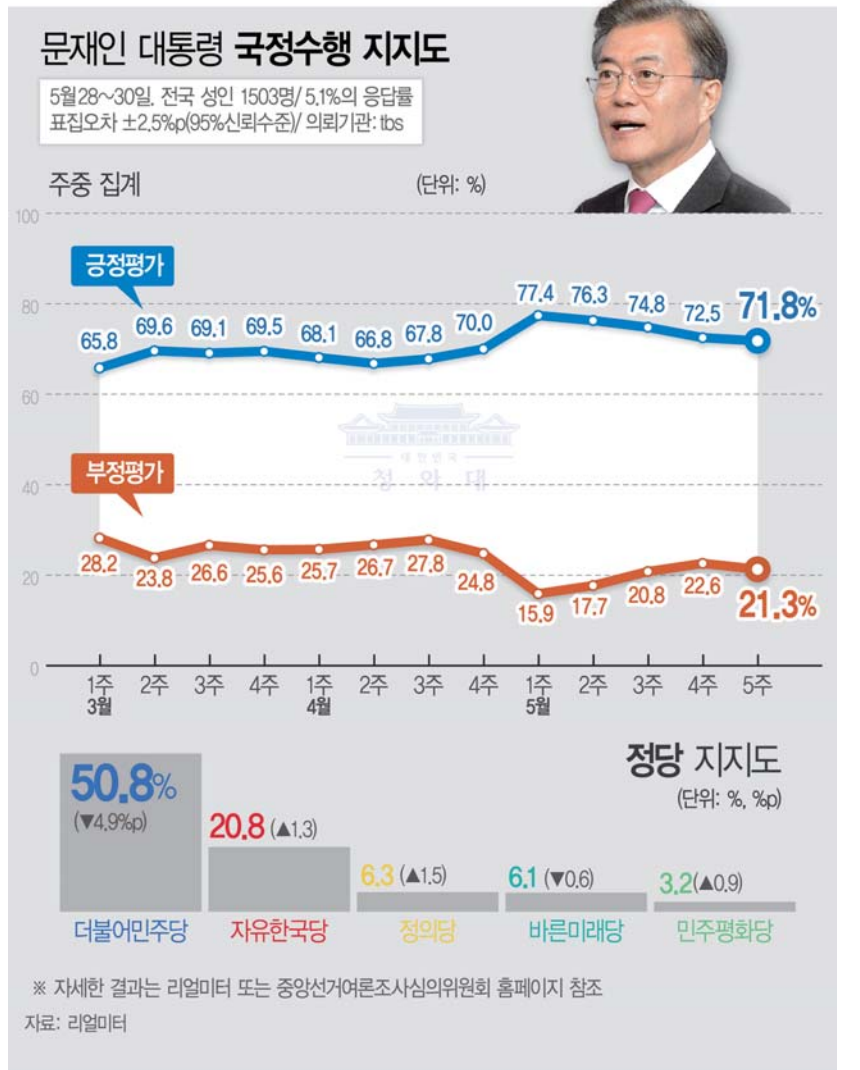
정의당 나 후보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당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의 지지율 목표는 21%다. 지지율 21%는 반드시 기초의원 과 비례의원 전원을 당선시켜 21세

기를 책임지는 진보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결의"라며 "정의로운 세력이 정치 주류가 되고, 낡고 부패한 수구세력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또 "광주는 본선거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깜깜이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민주당 이 후보는 더 이상 TV 토론을 회피 또는 거부하지 말고 수백장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읽어도 좋으니 TV토론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윤 후보는 첫 일정을 소화한 뒤 광산구 흑석사거리로 옮겨 이미유 시의원 후보 김진미 구의원 후보와 합동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진짜 야당, 정통 진보정당 민주당에 힘을 실어 달라'며 "5월에서 통일로, 자주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주 시민의 절대다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라 '노동자가 행복해야 광주가 행복한 만큼 노동을 존중하는 첫 광주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문대통령 지지율, 0.7%p↓ 하락 71.8%

###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여파에 7주만에 최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번째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북미 정상회담 재개 물꼬에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5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7%p 내린 71.8%로 나타났다. 31일 밝혔다. 약보합세를 보이며 4주째 하락한 것이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 실장은 "최저임금제 개정안 통과,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분배 관련 요인이 국정수행 부정평가 주 요인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과 호남, 40대와 5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9%p 떨어진 50.8%로 7주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참여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반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최저임금법, 소

독 양극화 지표의 악화 등 민생 관련 문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여야 격돌과 맞물린 영향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3%p 오른 20.8%였다. 보수층 결집 현상을 보이며 5주만에 다시 20%선을 넘어섰다.

정의당은 1.5%p 오른 6.3%로 바른미래당을 제치며 3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층에서 일부 이탈하며 0.6%p 내려간 6.1%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9%p 상승한 3.2%로 3%대를 회복했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28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1969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혁야당·견제야당에 힘 실어 달라"

### 평화당 광주선대위

민주당이 6·13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다 이긴다해도, 13곳 밖에 안돼 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정부를 올바른 개혁 노선으로 가게 할 정당, 광주와 호남 예산을 책임질 정당, 4번 타자 기호 4번 평화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전정배 광주 상임선대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부조리는 권력의 독점에서 시작되며 광주 시민들은 이미 이를 잘 알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광주, 호남

의 발전을 위해 평화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6·13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다 이긴다해도, 13곳 밖에 안돼 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정부를 올바른 개혁 노선으로 가게 할 정당, 광주와 호남 예산을 책임질 정당, 4번 타자 기호 4번 평화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평화당은 4개 구청장 후보와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27명과 함께 김명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까지 모두 44명의 후보를 광주지역에 출마시켰다.

## "기호 7번 손훈모 손을 잡아달라" 호소

###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성황·시민캠프 명명

손훈모 순천시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개소식을 열어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30일 손훈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손 후보 사무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소식을 열고 지지자들과 내외 귀빈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직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캠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인사말에서 "순천시민들은 진짜 수준 높은 민주 시민이며 순천은 진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인과 머슴이 바뀌는 해



피한 일이 벌어졌다. 가짜 진짜를 무시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순천의 구시대 정치를 함께 청산하면 시민주권이 살아 남는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이 자리 이후로 가는 곳마다 정의의 물외주시키고 기호 7번 손훈모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